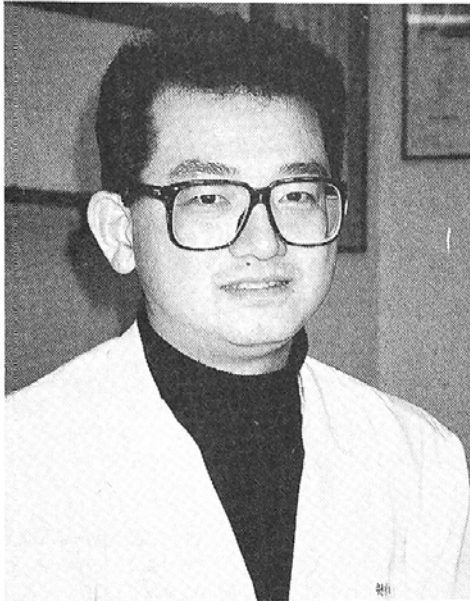


“영세민 진료통해 이웃사랑”

무료 한방인술 퍼는 불자한의사 강재훈씨



◇소외된 이웃을 찾아 한방인술을 펼쳐온 강재훈씨.

여명이 진료를 신청하는데, 치료시간 외에도 이들과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나누며 그들의 생활이 이내 친숙해진다. “그분들의 생활에 가까이 가고 싶은 것은, 의료행위라는 물리적 요법도 중요하지만 심리적 접근도 중요한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방 치료는 인간의 심성을 중히 여겨 그 진료도 직접적·대중적

과를 혼합한 의료기구’ 구입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요즘은 진료 전날 아내와 함께 밤을 새우다시피 해 약침을 만든다. 강원장은 또 순수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한편 의료 실현을 위한 청년의사회’라는 단체의 부산지부 회장 일을 맡고 있기도 해 그가 운영하는 한의원엔 부업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

“한일협정은 日침략 면죄부다”

과거청산국민운동본부 6월 22일 개정안 발표예정

한일과거청산국민운동본부와 6·3동지회는 지난 28일 송현클럽에서 한일협정 개정안 요강발표회를 갖고 한일협정 체결 31주년이 되는 오는 6월

22일 한일협정 개정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은 상임의장은 취지문을 통해 “65년 체결된 한일협정은 한반도 강점 및 침략전쟁의 책

임을 명확히 하지 못한 채 일본에 면죄부를 준 굴욕적인 매국협정”이라며 즉각 개정을 촉구했다.

성직자양성대학원 무효화 추진

범종단 교육개혁대책위 6일 결성

교육개혁위원회의 제2차 교육개혁방안중 성직자양성 전문대학원 설립의 부당성을 지적해온 교계는 6일 범종단적인 불교개혁위원회를 결성한다. <관련기사 3면>

청와대관계자와 전화를 통해 “법령시행령 제 31조에 명시된 ‘신학대학원’을 ‘종교관련 대학원’으로 변경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법률전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상범교수(동국대·법학)는 한일협정 개정안에는 △식민지배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모든 문화재의 반환 △재일교포의 법적지위 향상 △식민지배 및 수탈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표현을 명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월 2회 두송사회복지관 방문 자비 나눠 진료전날 아내와 함께 ‘약침’ 만들며 밤샘

이제는 사회 봉사활동으로 다 하고자 나선 것이 무료 한방진료입니다. 강재훈(37, 부산 강재훈한의원 원장)씨에게 있어 무료 한방진료 활동은 소외된 이의 삶과 항상 함께 해야 한다는 평소 소신의 실천과 다르지 않다. 매월 2회에 걸쳐 하는 두송종합복지관(관장 지현스님) 무료진료에는 관내 영세민 50

요법에 앞서 간접적·근본적 방법을 우선시 합니다. 5개월여 동안 꾸준히 해온 무료진료 활동에는 동의대 한의대 재학생과 졸업생들도 함께 해 줘서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아직 약재와 의료인원이 부족해 어려운 점도 많다. 진료 시 가장 많이 쓰이는 ‘약침(한약재를 증류시켜 침과 약의 효

자의 일에 스스로 상을 내게 될까봐 조심스럽다는 강원장은 “저는 믿음이 돈독한 것도 아니고, 불교의 인자에서 만 맺는다 할까요. 그러나 앞으로 소외된 이와 항상 어울리는 생활불교, 실천불교의 믿음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포부를 밝힌다.

부산=박병근 기자

“비서실장·안기부장등 경질해야”

부불련 7인대책위, ‘국군중앙교회 예배’ 관련 촉구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7인대책위원회(위원장 도봉)는 지난달 28일 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김대통령의 국군중앙교회 방문과 관련 비서실장, 국방장관, 안기부장에 책임을 물어 이들을 경질시킬 것을 요구하고 3월5일 까지 답변이 없을 경우 대규모 항의집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 전문대학원제 도입’과 관련하여 이는 실제로 기독교 신학대학 인재양성과 개신교 목사의 대량수급을 위한 국가의 배려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전면 백지화를 주장했다.

‘조직개편모임’ 구성 전불련, 발전청사진 마련

전국불교운동연합(상임의장 지선)은 지난달 24, 25일 대전 유성에서 제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전불련 조직개편

을 위한 논의모임을 구성했다. ‘대의원총회 및 불교운동 전진대회’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은 불교계 혁신진영의 통일 및 세력정립의 기초, 교계 혁신진영이 제시하는 정책이 기초한 종합 청사진 마련이라는 활동방향을 정하고, 전불련 조직개편을 논의할 조직개편 추진위원회 10인을 선임했다. 또 실천승가회의 전불련 탈퇴안을 동의 하고, 총선출마로 공동의장직 사표를 제출한 이문욱 공동의장

의 사표를 수리했다. 기독교인과 논쟁후 사찰 사무장 숨져

지난 26일 오후 2시30분경 서울 면목동 소재 법화중 수도입법당에서 이 사찰 사무장 김진수씨(68)가 숨져있는 것을 아들 하연씨(28)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중랑경찰서는 숨진 김씨가 전도하러온 개신교 신도 원모씨(44·여) 등 여자 2명과 논쟁을 벌이다 흥분해 심장마비를 일으켰거나 원씨 등이 밀어뜨려 숨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27일 부검을 실시, 정확한 사인을 조사중이다.

전국규모 불교청소년단체 추진

조계종 포교원 15개지부 결성기로... 포교활성안등 4대 과제 확정

조계종 포교원(위원장 성타)은 ‘불교청소년의 해’를 맞아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와 양립하는 전국규모의 청소년단체를 추진할 것이라고 지난 24~25일 대구 동화사에서 개최한 청소년 지도자 모임에서 밝혔다.

포교원은 또한 △전국규모 청소년단체 육성 △청소년 포교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문화사업 추진을 불교청소년의 해 4대 과제로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조직정성과 사업에 착수했다.

특히 불교청소년연합회(가칭)를 이달대로 법인화하기 위해 세부조직으로 전국 15개 시도별 지부, 1백80여개 시군구별 지회, 7천여개의 중고등학교 및 사립학교 분회를 결성, 한편 포교원은 시대에 맞는

청소년 포교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과 청소년 지도자 육성을 위해 오는 3월 월간 청소년법회(가칭), 지도자 지침서, 단원수첩, 단원활동집 등을 발간하고 매년 1회이상 불교청소년 지도자 연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기로 했다.

<대구=이윤호 기자>

대구 공명선거협의회 발족

고발창구등 운영... 불교단체 참여 활발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대구 지역 시민단체협의회(회장 이정환) 발대식 및 결의대회가 지난 28일 오후 7시 원불교 대구경북구청 법당에서 불교인권위원회 대구지부, 원불교 대구청년회, 대구불교산악회, 대한불교대불회, 대구경실련,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홍사단, 대구여성회 등 12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

다. 공선협은 부정선거 고발창구 운영, 공명선거를 위한 영호남 유권자대회, 공명선거 캠페인 등을 벌일 예정이다.

중·고 교원 9명 임용 동국학원 이사회

동국학원(이사장 녹원)은 지난 21일 제 1백38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96년도 새해예산 1천 6백여억원을 심의 통과하고 중·고등학교 신규교원 9명을 임용했다.

중교편향문구 공문 부천원미구청 ‘사과’

공문서에 특정종교의 문언을 사용, 불교계의 반발을 빚었던 부천시 원미구청이 지난달 14일 사과와 뜻과 함께 담담공무원에게 주의·훈계로 문책했다고 밝혔다.

청교련 ‘부여봉사센터’ 개원

지회개설 현판식도

(사)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부여지회(지회장 정민스님)는 지난 1일 보리사에서 현판식 및 자원봉사센터 개원식을 개최했다. 충청권에서는 최초로 개원되는 자원봉사센터는 보리사내 정토회, 청년회를 비롯 지역내 불자들이 후원회를 조직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자원봉사센터는 상반기 사업으로 길거리 농구대회(5월), 자

원봉사활동(수시), 농촌 일손돕기 등을 첫 사업으로 펼칠 예정이다. 이밖에 3대 부모 학생 시설(고아원)의 3대 한가족을 형성하는 인연맺기 운동을 비롯 캠페인, 위문 자선 구호활동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자원봉사센터 설립을 추진해 온 이선열씨(사무국장)는 “농촌이라는 지역 특수성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 할 것”이라며 “농민기 일손돕기, 자연보호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음 세상이치가 팔만대장경

마음이 있음으로써 태양도 지구도 우리 몸도 형성되었다. 그렇게 깎듯어 놓고 지구양에다 육신양에다 마음으로 또 깎가지듯 정령을 꾸며놓은 것이다. 그러기에 이 세상이치가 그대로 팔만대장경이요 진리나 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생황을 떠나서는 진리를 찾아 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옹고 웃는 생황속에서 자기 자신이 식, 체로서 있는지 살펴보라. <한마음오전>

합찬 한마음선원 범형제회

통도사 서운암에 불요사채 2등 전소

경남 양산 통도사 서운암(주지 성파)에서 일요일인 지난달 25일 오후 4시경 원인모를 화재가 발생, 요사채 2동이 전소됐다. 불을 처음 발견한 신도의 말에 따르면 요사채 안에서 연기가 발생한 직후 불이 번졌다. 화재가 발생한 직후 양산소방서 소속 소방차가 긴급출동해 화재를 조기에 진압, 다행히 다른 건물로는 불이 번지지 않았다. 서운암은 현재 16만 도자대장경 조성불사가 진행중이다.

대중 불교 3월호

- 대중불교의 빛을 찾아서
- 대구 삼영불교서점 / 이승환 회장 · 14
- 쇠북소리 · 선가와 거짓말 / 임현영 · 10
- 귀담아 듣고 새겨볼 이야기
- “최고급 승복 주문반응”이라 / 김정자 · 12
- 대중불교사사
- 서면 인터뷰 · 서석재/추미애/이문욱/조순환 · 48
- 진단 / 직장직능불교 현황 · 76
- 취재 · 조계종과 선학원 꼭 갈라야 하나 · 82
- 기획 / 극에 달한 종교 편향
- 한계에 이른 종교갈등과 그 책임 · 38
- 종교편향, 대통령이 부추긴다 · 42
- 불교교리 산책 · 유식(2)상식과 유식 / 정승석 · 24
- 선화일편 · 금강산(金剛山)이야기 / 설산 · 34
- 우리 절의 신행, 이렇게 한다 · 고통에서 행복으로/ 현장 · 72
- 해외불교석학열전(3)
- 알렌 와츠(Alan Watts)/ 정희수 · 94
- 칼라화보
- 원성스님의 동심의 노래@봄의 향연 / 원성 · 53
- 구산선문(6)사굴산문 굴산사터 · 54
- 일과 문화 · 함평 고막다리 · 60
- 첫 개인전 여는 석정스님 · 64
- 해외불교 · 몽골불교가 위기를 맞고 있다/김성정 · 86
- 산천기행 답사기
- 선인들의 자취를 찾아 떠나는 즐거움 · 66
- ◀3월, 효림스님과 함께 떠나는 ‘대중불교 산천기행’
- 남한강변의 썩사지와 절들
- 인연의 땅, 원력의 땅을 찾아가는 대중불교의 산천기행이 답사 문화의 새로운 장을 마련합니다. 함께 배우고 불심을 키워 갈 마음이 젊은 모든 불자를 환영합니다.
- 가는 곳 · 폐사지의 하이라이트 / 여주 고달사지, 원주 흥법사지, 법천사지, 거둔사지, 신록사, 구룡사 등의 폐사지와 절들
- 기 간 · 1996년 3월 9~10일(1박 2일)
- 모이는 곳 · 압구정동 현대 백화점 야외 주차장 (오후 3시 출발)
- 참가비 · 55,000원(대학생 50,000원, 초중고생 40,000원)
- 접 수 · 전화(02)752-7047, 764-1614
- 은행지리번호 국민은행 098-01-0236-597 김판동(산천기행)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지 않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발열이 겹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썩 편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뜨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빠르거나 눈이 침침하다. ()

27지 이상 관련되는 문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오.

제품문의: (株)고려물산, 한국 방향연구소
수신자 부담 080) 200-4545, (02) 755-9821